

전남 동부권

순천 교통소통 원활해진다

내년 첨단 관리시스템 운영... 도로정보 실시간 제공

순천시가 내년 2월부터 첨단 교통 관리시스템(ATMS) 본격 운영한다. '첨단교통관리 시스템'은 차량 속도를 비롯해 차량 지·정체 상태 등 도로교통 상황과 차량번호·중량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 운전자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분석해 효율적인 도로 교통관리와 최적의 신호체계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순천시는 도심 지역의 교통혼잡 완화와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교통 인프라 사업으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에서 '간선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공모 평가를 통해 지방중소도시에서는 유일하게 국비 15억원을 지원받아 총 30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구축공사를 완료하고 시험 운영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은 도시의 중앙도, 백강로, 팔마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정원박람회장 진출입 도로인 남송릉길 등 총 23km에 걸쳐 CCTV,

교통정보, 수집카메라, 도로 전광표지판(VMS)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교통 정보의 수집 및 정보제공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이미 구축된 버스정보 시스템과 주정차단속시스템 정보를 연계, 청내에 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도로 전광표지판을 통해 운전자들은 교통상황 및 상습정체구간 우회도로 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받아 교통혼잡도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이철...스릴... 짜릿한 산 속 질주
지난 10일 '춘계 전남도지사배 고층 운암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참가선수들이 힘차게 달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중급부 부문 전주 팀엘피마 노혁민 선수 ▲그랜드마스터 2부문 서울 오디바이크 김중호선수 ▲단체전 경남 사천 MTB연합회가 각각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고흥군 제공>

30년간 지구 29바퀴 거리 바다 경비 여수해경 266함 퇴역

30여 년 동안 지구둘레의 29배가 넘는 바닷길을 항해하며 해상치안 임무를 수행하던 해경 경비함이 퇴역한다. 11일 여수해경경찰서(서장 김두석)에 따르면 250t급 중형 경비함인 266함(속리산호)이 지난 9일 마지막 해상경비 임무를 끝으로 퇴역했다. 266함은 다음달 말께 여수해경에 인도될 예정이다. 266함은 지난 1980년 11월 건조돼 동해해경에서 취역, 3년만인 1983년 10월 여수해경으로 이동배치된 후 총 9만8000여 시간 동안 116만5000여km를 운항하며 각종 임무를 수행해왔다. 이는 지구둘레를 무려 29바퀴나

돌고도 수천km가 넘는 거리다. 또한 266함은 그동안 6700여 척의 검문검색을 통해 450여 척의 각종법규 위반 선박을 적발했고, 충돌·좌초 등 사고를 당한 선박 72척에 대한 수색·구조를 통해 667명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냈다. 밀수·밀입국 등 국제적 범죄단속과 함께 섬이나 바다에서 고통을 당하던 응급환자 49명을 육지로 이송했으며, 전남동부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12척을 나포하기도 했다. 266함 임체철 (52) 함장은 "30년 5개월 동안 경비함을 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승조원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광양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시, 내달부터 '중고물품 나눔장터' 운영

광양시는 5월 1일부터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시스템' 및 '중고물품 인터넷 나눔장터'를 개설, 운영한다. 이는 대형폐기물 처리에 따른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3R(폐기물 감량, 재활용, 재사용) 운동을 생활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시스템'은 시민들이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시 홈페이지(www.gwangyang.go.kr) 또는 도시생활폐기물 통합관리 서비스(www.citywaste.or.kr)에 직접 접속해 24시간 배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이차나 신제품 구입 등으로 불필요한 중고물품을 홈페이지

'나눔장터'에 등록하면 필요한 물품의 상호교환이나 재사용 가능하다.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전·가구류 등 대형 폐기물은 버리기 전에 주변 이웃이나 재활용센터, 나눔장터 등을 통해 재사용하게 되면 쓰레기 발생량도 줄이고 처리비도 아낄 수 있다. 신규 전자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중고품은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거해 재활용하게 되므로 배출신청 하기 전에 반드시 재사용 가능 여부를 알아야 한다. 대형폐기물의 인터넷 배출신고 절차는 신규가입→대형 폐기물 신청→기본정보 입력→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수수료 납부필증 출력→대형 폐기물 인터넷 배출부착 배출하면 폐기물처리 대행업체에서 납부필증 번호 또는 바코드를 휴대정보 단말기(PDA)로 확인한 후 수거하게 된다.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담당공무원이 처리를 대행해 준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도 대형 처리가 가능하며, 또한 프린터가 없는 가정에서는 유선 매직으로 납부필증 번호와 연락처만 기입해도 수거처리가 가능하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지금까지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없애고 불법투기를 예방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4월말까지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개선 보완한 후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먹거리 사업에 IT 접목 경쟁력 강화

도 '농수축산 u-IT 공모' 4년연속 선정

전북도와 완주군, 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 '건강한 밥상'이 함께 IT기술 융합을 통해 농어업 경영체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 지원농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완주군 '공동체 지원농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이 선정돼 국비 2억원

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농수축산 u-IT 공모사업'에 4년연속 선정됐다. 전북도는 지난 2008년 순창군 장류 연구소와 추진한 'u-IT 기반의 전통 식품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사업'(사업비 12억원)을 시작으로 ▲2009년 진안 인삼생장환경 및 제어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비 9억4000만원) ▲2010년 장수 친환경 양돈사양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사업비 6억5000만

원)이 국가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농수축산 u-IT 공모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농어업 생산·경영·유통 분야에 선진 정보기술 및 IT 융합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농어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완주군에서 먹거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로컬푸드 사업단의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신청한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선정돼 추진될 예정이다. '로컬푸드 사업'은 식품의 유통 단계 및 운송 거리를 줄여 유통마진과

운송에 소비되는 화석연료 절약을 통해 유통마진 절감 및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주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완주군은 2010년 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 '건강한 밥상'을 결성해 관내 80여개 마을공동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2700여 회원을 확보해 '건강밥상 푸러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산물의 수매부터 판매까지 일어나는 일련의 운영업무 관리하는 경영정보 시스템 구축과 RFID Tag부착을 통해 유통센터 내에서의 이력 추적, 보관 관리 등을 수

"친환경 농산물 안전해요"

농업기술원 토양성분 분석...중금속 불검출

전북 도내의 친환경 농산물이 중금속 속에 오염되지 않고 안전하게 재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달 친환경 농산물로 재배 중인 오이와 토마토, 쌈채소(상추·다래·적격자)를 분석한 결과 사람에게 해로운 수은과 비소, 카드뮴 등의 유해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단백질과 칼슘, 칼륨, 철분 등의 영양성분은 많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칼륨과 인, 칼슘 등은 0.6~4.8%으로, 기준치보다 비교적 높게 나왔다. 아울러 친환경 농업으로 농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의 토양과 농업용수를 대상으로 한 유해중금속 성분 분석결과에서도 중금속 함량은 기준치의 10~20분의 1수준 이하로 나타났다.

토양 속 카드뮴은 0.03~0.11, 납은 2.8~9.4, 니켈은 kg당 3.2~18.5mg(ppm)으로, 토양 환경보전법의 우려 기준(kg당 카드뮴 1.5mg)과 대책기준(kg당 카드뮴 4.0mg)을 크게 밑돌았다. 농업용수도 카드뮴 0.0002, 납·크롬 0.0014 mg/kg(ppm)으로, 수질 환경 수준 이하로 조사돼 친환경 농산물을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벼, 오이, 고추, 토마토 등이 품질 좋고 안전하게 생산될 수 있는 토양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도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훈장님들 과거시험 도전!
10일 남원시 사령의 광장에서 열린 '전국 서당문화 한마당' 행사에 참가한 훈장님들이 강경(講經)대회를 하고 있다. 강경은 소과, 문과, 무과, 잡과 등의 과거 제도 가운데 하나로 춘향전에서 이용룡이 과거급제한 장면으로도 유명하다. /연남뉴스

수산기술연구소 전북 20만마리 방류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연안 수산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오는 13~14일 이틀간 군산 어청도, 부안 위도해역에 어린 전복 20만마리를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하는 전복은 지난해에 종묘 생산한 1년생으로 길이 3cm 내외의 1년생 치패이다. 방류한 전복은 어류와는 달리 이동성이 거의 없어 대부분 방류 지점

행하는 물류센터 정보시스템, 소비자와의 소통을 위한 건강밥상푸러미 장터구축 등이 추진된다. 특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산, 보관, 배송에 관련된 일련의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2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비자에게 제품의 이력제공, 푸러미 선택기능 제공 등을 통한 신뢰도 향상으로 '건강밥상 푸러미 사업'의 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을 위한 사업중의 하나인 로컬푸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향후 타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단신

도내 10개 가축시장 내달 경매 재개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에 따라 폐쇄됐던 정읍·남원·완주 등 도내 10개 가축시장이 5월부터 다시 문을 연다. 송아지는 이달 18일부터 경매를 재개키로 했다. 그동안 축산농가는 축합에 설치된 '가축중개매센터'를 이용했으나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출

하적제의 어려움을 겪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축시장은 조만간 재개장하지만 축산 농가 시 문을 연다. 송아지는 이달 18일부터 경매를 재개키로 했다. 그동안 축산농가는 축합에 설치된 '가축중개매센터'를 이용했으나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출하적제의 어려움을 겪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축시장은 조만간 재개장하지만 축산 농가 시 문을 연다. 송아지는 이달 18일부터 경매를 재개키로 했다. 그동안 축산농가는 축합에 설치된 '가축중개매센터'를 이용했으나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출

김제보건소 '관절염 수중운동 교실' 인기

김제시 보건소(소장 이병철)가 운영하는 '관절염 아쿠아로빅(수중운동) 교실'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 보건소는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65세 이상 주민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기 위해 4월부터 5월 31일까지 30회(주 3회)

일정으로 '관절염 수중운동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아쿠아로빅'은 물의 저항력 때문에 지방소모량도 2배에 이르러 비만에 탁월할 뿐 아니라 체중부하를 줄여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이어서 큰 효과가 있다. /전북취재본부=홍운선기자 hnews@

전국한우협 정읍시지부 이·취임

(사)전국한우협회 정읍시지부는 지난 8일 임페리얼 웨딩홀에서 김생기시장을 비롯한 내외위원과 한우협회 회원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4, 5대 지부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제5대 회장에 한양수(50·북면 한교리)씨가 취임했으며 고

문으로 박승술씨, 김기춘씨를 위촉했다. 고동식씨 등 19명은 한우협회 지역이사로 임명됐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질 좋은 한우생산과 고급화로 위치를 확고히 다져나갈 수 있도록 농가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순창 '장수과학 지도자 과정' 견학 줄이어

'건강장수 교실' 순창군이 단순 관광을 뛰어넘어 지식관광 지역으로 뜨고 있다. 11일 순창군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동구의회 의원,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제7기 장수과학 최고지도자 과정' 교육생 등 방문

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강진산과 장류연구소, 건강장수연구소를 견학하고, 섬진강변에서 쉼게기 체험을 하는 등 다양한 장수정책을 배우고 실제로 현장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